저주가 축복의 우선적인 재료다

(사사기 9:1~57)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4.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저주가 축복의 우선적인 재료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저주가 축복의 우선적인 재료다’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에는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배하는 풍습이 있고, 서로 인사를 할 때에 덕담을 나누게 되는데 그 세배와 덕담의 주된 내용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 하나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복은 저주에 말씀을 더하고 번제를 더하면 됩니다. 축복=저주+말씀+번제입니다.
이 등식대로 풀어서 말하자면 따로 축복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말씀과 번제를 더해야 축복이 되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 모두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상황에 태어난 자들에게 말씀과 번제의 의미가 더해져야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상태가 저주인 것을 모르고 말씀과 번제의 의미가 가미되지 않은 채로 축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주를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주가 무엇이고 어떤 상태이기에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주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기피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가 반대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저주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저주를 재료로 삼아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우리 마음의 굶주림으로 만족이 없는 것이고, 만족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배를 채우려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이고, 결혼하는 이유도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이고,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이고, 친구를 사귀고, 권력을 추구하고,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을 하는 등의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다 마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저주가 아닌 상태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고 사업도 하면 모든 행동이 다 사명이 됩니다. 내 마음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참다운 결실이 맺히게 되고 삶을 돌아보면 열매로 가득 차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내 배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사업도 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돌아보면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안개처럼 사라져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갖 영적인 음란만 저지르고 다닌 흔적만 마음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 하나님과만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기쁘고 만족하며 참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다른 것과 연합하여 평생을 산 것이 영적인 음행이 되는데 축복을 추구한 삶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선별하신 삼백 명의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미디안 십삼만 오천 명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기드온의 서자 중에 세겜에 살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본대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살아남은 막내아들 요담까지 칠십 이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을 얼마나 낳았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도망친 요담을 제외한 기드온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겜 지역과 기드온의 고향 땅 근처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7절에는 피신한 막내아들 요담이 잔혹한 골육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이 현실에서 아비멜

렉과 그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찌른 다음에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백성들을 절반씩 나누어 세우고 가운데에는 법궤를 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가운데,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언하는데 이 점이 이상합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을 읽다보면 요담이 우화적으로 이 상황을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유익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여 왕 되기를 거부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폭정을 휘두른다는 내용으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협동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반목하게 되어 아비멜렉이 세겜을 치게 됩니다. 데베스라는 성읍에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높은 망대에 피해 있었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던 아비멜렉을 향해서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맞고서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됩니다. 요담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 산에서 했던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임하여서, 세겜 사람들은 배반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죽고,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여인에게 죽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옆의 소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해서 죽게 되는데 결국 맷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은 왜 그리심 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노래를 부른 것일까요? 기드온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임의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에봇은 실로에 있던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에봇'은 가슴에 흉패가 달려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입는 옷이었는데 그것을 임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괴멸시킨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게 될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은 좋아했지만 그 뜻을 자의적으로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본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번제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뜻으로 좋아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전달 될 수 없습니다. 번제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되면, 내 육체의 뿌리를 둔 욕망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뜻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한 열매를 맺고 틀림이 없고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인 힘을 알기 때문에, 욕망을 살려둔 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기드온의 상태가 그

리심 산에서 저주를 말하는 상태로 축복의 산인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부르고 축복을 찾아야 하고 축복을 추구하는 장소에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심 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x+y+z의 등식이 있다면, 30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x y z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발 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석회 바른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 산에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보이게 됩니다. 즉 축복=저주의 에발 산+번제단+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놓여있는 상태가 저주의 자리인 줄을 모릅니다. 저주를 재료 삼아서 축복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곧바로 그리심 산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번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락된 상태가 되어서 그 자리는 모조리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 자체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결혼이라는 사실이 저주가 될 것이냐 축복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로서 성립하는 것인데 이것에 말씀과 번제가 가미되지 않으면 다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 자체는 저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축복을 향해서 움직일 때에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은 기쁘고 배불러서 만족해지는 상태인데, 배 부르려고 움직이면 다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키려면 먼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해야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관장하는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고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함이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씀주의가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좋아했는데 뜻 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결실을 맺는 방법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배를 채우려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제까지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저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고픈 배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불려야 될 배가 굶주린 상태에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영적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에게서 나온 아비멜렉이 기드온에게서 나온 형제 칠십 명을 다 죽인 것은, 내가 추구하는 축복의 행

위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사실을 저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벗어나야 하지만 기피하지 마시고 저주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헐떡거리고 침을 흘리는 상태가 바로 저주인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시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복된 사람이 되면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축복의 연장이고 은혜 위의 은혜가 됩니다.
이 번제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유일하게 내 배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저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번제단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저주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재료인 저주는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엄청나게 저주로 충만한 것이지만, 십자가 번제를 알고 말씀의 총화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서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으면 그 충만한 저주는 충만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재료가 엄청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저주의 성향이 나타나므로 모든 성향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말씀과 번제단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죽을 때에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고 동시에 번제단의 요청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 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서 만족하게 되고, 그럴 때에 율법과 말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켜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축복=저주+말씀+번제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의 재료로서 바꾸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성립하는 등식을 기억함으로서 기드온이 범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